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2023. 1. 27.(금)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자료문의 : 공판1과
전화번호 : 02-3480-2360
주책임자 : 공판1과장

제목

2022년 하반기 최우수검사 2명 및 12월 공판우수사례 6건 선정(*상세 별지)

- 대검찰청은 위증인지 실적, 공소유지 우수사례, 정보보고 등을 토대로 2022년 하반기 「공판 최우수검사」로 서울동부지검 김상범 검사(사연 43기)와 서울남부지검 신의호 검사(변시 4회)를 선정하였음
 - 김상범 검사는 ①2022년 11~12월 2달간 위증사범 총 11명을 입건·기소하고, ②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석방된 당일 도주하자, 3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은신중이던 피고인을 검거한 후, 도피에 도움을 준 공범을 범인도피로 입건·기소하고, ③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면소를 주장한 사건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던 사람을 찾아 새로운 증인으로 추가 신문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음
 - 신의호 검사는 ①2022년 5월부터 위증사범 총 12명을 입건·기소하고, ②사망 피고인에 대한 실형 확정판결 방지방안, 보이스피싱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 전산시스템 구축, 위증수사 매뉴얼 작성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③노동자 3명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1심에서 동일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각 사건의 법령위반 장소가 구분됨이 명확히 확인되는 추가 증거를 발굴하여 파기 유죄선고를 이끌어내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였음

■ 아울러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6건을 **1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격려**하였고, 주요 공판우수사례는 아래와 같음

- ①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현금 수거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재생, 강제출국 임박한 공범에 대한 영상증인신문, 사실조회를 통한 피고인 주장 탄핵,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신고자에 대한 생생한 증인신문, 위증 진술 탄핵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전부 유죄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서울북부지검 유제일 검사]
- ②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협박의 처벌불원의사 유무가 쟁점이 되자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목적 협박'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해당 부분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부 유죄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지검 이상미 검사]
- ③ 공동상해사건에서, 원거리에 거주 중인 주요 증인이 지병으로 인해 장시간 운행되는 차량 등에 탑승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영상 재판 프로그램으로 거주지 부근에 있는 통영지원과 강릉지원을 연결, 통영지원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실체관계를 밝혀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강릉지청 김병채 검사]

[별지 : 공판 최우수검사 및 공판우수사례 선정 내역]

순 번	이름(기수)	'22년 하반기 공판 최우수검사
	소속(부장)	
1	<p>김상범(43)</p> <p>서울동부 공판부 부장검사 조영희(35)</p>	<p>【사법질서 저해사범 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 측 증인이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위증하는 것에 착안, 1년 전 1심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 측 다른 증인이 위증한 것을 확인, 암장된 위증 사건을 적극 발굴하여 피고인 측 증인 2명을 위증으로 입건하는 등 11~12월 동안 위증사범 총 11명 입건·기소 <p>【공소유지 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상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면소를 주장한 공문서위조 사건에서, 위조 주민등록증행사 상대방을 새로운 증인으로 추가 신문하는 등 종전 처벌받은 주민등록증상 인물과 본건 주민등록증상 인물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 - 사무처장과 직원이 공모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거 작성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가 유력한 증거임에도 피고인의 위조 주장에 따라 진정성립을 인정받지 못하여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자 변론종결 단계에서 즉석으로 공동피고인인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경위서 작성 경위, 위조 여부, 경위서의 내용 등을 상세히 증인신문하여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 <p>【피고인 검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택배건 경태'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된 당일 도주하자, 통신내역 등에 대한 법원의 직권 압수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검사 의견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대포폰을 찾아낸 다음 대구 소재 오피스텔에 은신 중이던 피고인을 검거하고, 도피에 도움을 준 공범 2명을 범인도피로, 이를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로 입건·기소한 사례

순 번	이름(기수)	'22년 하반기 공판 최우수검사
	소속(부장)	
2	신의호 (변4) 서울남부 공판부 부장검사 공준혁(35)	<p>【사법질서 저해사범 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용합쇼핑몰 운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3,700여명으로부터 총 283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구속되었음에도 공범에 대한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에게 용합쇼핑몰 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안에서, 교도소 접견록을 분석하여 위증 사실의 핵심 증거가 되는 접견 내용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출장조사하여 위증 입건 후 원사건과 병합기소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피고인을 엄단하는 등 2022년 5월부터 위증사범 총 12명을 입건·기소 <p>【공소유지 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의 1심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각 사건의 법령위반 장소가 구분됨이 명확히 확인되는 추가 증거를 발굴하여 제출하고,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파기 유죄 선고(징역 1년 6월)를 이끌어낸 사례 - 봉인절차가 흠결된 압수물(휴대전화)에 대해 대검 감정을 통해 정보의 무결성 및 동일성을 입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깡통전세 사기사건의 항소심에서 타청 주임검사(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와 협력, 신축빌라 깡통전세 사기 구조를 재판부에 현출하여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였음 <p>【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 업무 수행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의 구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건의 - 위증 수사 프로세스 연구를 주 과제로 한 위증 전담팀의 일원으로 위증 범죄의 사정 방지 체계 및 위증 수사 단계별 조치 사항을 골자로 한 「위증 수사 매뉴얼」을 작성, 배포 - 사망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확정된 사례를 검토하여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의 사망 등 변경된 사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순 번	이름(기수)	12월 공판우수사례
	소속(부장)	
1	유제일(변10) 서울북부 공판부 부장검사 김재화(35기)	<p>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현금 수거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재생 등을 통해 전부 유죄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다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수거 당시 영상을 재생함으로써, 피고인이 현금을 제대로 세지도 않고 수거장소에서 빠르게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등을 현출하고, -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인이 대학교에서 수강한 한국어 수업 내역,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등을 확보하여 한국어를 몰라 피해자들과 대화할 수 없었고, 위조문서의 내용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고, -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장소를 이동하며 쪼개기 송금을 하는 등 범행 당시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게 하고, - 공범 출국 전 외국인보호소에 영상증인신문 장비 여부 확인 후 재판부에 신속하게 기일변경 및 영상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 조율을 통해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p>※ 그 외 한 달간 위증사범 총 8명을 입건하여 기소</p>
2	이상미(40) 수원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최나영(35기)	<p>스토킹 사건에서 협박의 처벌불원의사 유무가 쟁점이 되자, 특가법상 '보복 목적 협박'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부 유죄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스톱킹 사건에서 협박의 처벌불원의사 유무가 쟁점이 되자, -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목적 협박'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해당 부분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엄벌 요청됨을 의견 개진하여,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유죄의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된 사례 <p>※ 그 외 한 달간 위증사범 총 8명을 입건하여 기소</p>

순 번	이름(기수)	12월 공판우수사례
	소속(부장)	
3	<p>김병채(46)</p> <p>강릉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이재연(36)</p>	<p>공동상해사건에서, 원거리에 거주 중인 주요 증인이 지병으로 인해 장시간 운행되는 차량 등에 탑승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거주지 부근 법원에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실체 관계를 밝혀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공모관계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는 공동상해사건에서, - 주요 증인이 증인신문기일에 4회 불출석하여 재판 지연되자, 전화 면담을 통해 그가 지병으로 인해 장시간 운행되는 차량 등에 탑승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끔 한 다음 재판부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강릉지원과 통영지원을 연결, 통영지원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재판 및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실체관계를 밝혀 피고인 측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고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게 한 사례